

社說

민주당 전대 광주·전남지역 경선 될 남겠나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광주·전남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권리당원 22%가 몰려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승리하며 대세를 입증했다. 이 후보는 전남에서 79.02%, 광주에선 78.5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박용진 후보는 각각 20.98%, 21.42%였다. 15개 시·도 누적 집계론 이 후보가 78.35%로 21.65%에 머문 박 후보를 크게 앞섰다.

최고위원 선거는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송갑석 후보가 의미있는 성적을 거뒀다. 송 후보는 전남에서 14.55%로 3위, 광주에선 22.27%를 얻어 2위에 올랐다. 누적 득표율 9.09%로 7위에서 6위로 상승, 최종 5위권 진입을 위한 불씨를 살렸다. 현재 1-5위는 정청래 후보 26.40%, 고민정 후보 23.39%, 서영교 후보 10.84%, 장경태 후보 10.84%, 박찬대 후보 9.47% 순이다. 그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진명계'로 분류된다.

이재명계가 최고위원까지 상위권을 휩쓰는 흐름 속에 광주·전남은 송 후보를 선택했다. 호남 표심의 추세는 수도권으로도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막판 구도가 주목받

는 것이다. 특히 7위로 내려앉은 같은 '친문(친문재인)계' 운영진 후보가 송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퇴, 더욱 힘이 실렸다. 3위와 1.75%p, 5위와 불과 0.38%p 차이인 상황에서 송 후보는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에선 눈에 될 정도로 투표율이 저조해 반성과 쇄신 없는 민주당을 향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광주가 34.18%, 전남 37.52%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과거의 40% 초반대에 못미쳤다. 6·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과반을 훌쩍 넘어 거대 의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제대로 대응 못하고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에 실망이 큰 것이다. 또 '어재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이 되면서 컨벤션 효과가 반감된 측면도 있다.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이후가 우려스럽다.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2년 후 총선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비수도권 후보로 유일하고, 당의 뿌리인 호남의 지지를 받는 송갑석 후보의 투혼을 눈여겨보게 된다.

민선8기 시도지사 요구는 '혁명적인' 지방시대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해 올해 6·1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선8기 전국 광역단체장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그것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 '국가 질병'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새 회장으로 추대된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최근 정부 정책방향인 균형발전과 거리가 멀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모습이다. 강 시장은 "최근 법률로 보장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고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은 균형발전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법정 위상을 갖는 기구로 구성하고 더 나아가 집행력을 강화하는 행정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시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을 역설했다. 특히 사상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쌀값과 관련, "안정적

식량 공급과 식량안보 수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국회 정론관에서 쌀 주산지 시·도가 함께하는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999년 지방자치법 182조에 근거해 설립됐다. 이들은 지난 4월 지방분권 개헌, 지방세 확충 및 과세사권 강화,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충 등 정책 과제를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선택할 수 없는 필수 사항이 됐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지방자치기 실시된 지 30여 년이 지났다. 시도지사들은 균형발전정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지방은 다 죽을 판이다. 국정 운영의 등반자라면 위기 극복을 위해 원활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에 정부는 보다 분명하게 답해주길 바란다.

메이드인 광주혁신에 거는 기대

에너지 도시라고 부르지 않는다. 전력혁신도시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브랜드인 광산업은 최근 정체됐고, 반도체·인공지능의 길은 아직 멀다. 한때 골드메가 광주라던 금융산업이나 뿌리산업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 물론 광주 의료기 산업이나 일부 IT 기업에서 혁신사례가 종종 나오는 것은 다행이다.

서비스 비중이 높은 광주경제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관광, 문화, 마켓, 상권, 전통시장 등 서비스 산업에서도 코로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 악화로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이렇다 할 혁신과 성과들이 부족한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광주노화현상'이라 할만하다. 세계중소기업학 회장인 김기찬 교수는 자본주의에서 산업은 GGM '캐스퍼' 신차로 한때 주목을 받았으나, 2개의 완성형 자동차공장이 있는 도시다운 광주 브랜드가 없다. 태양광, 수소, 신재생에너지, 그린 광주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아직 누가 광주를 녹색

메인 클로빌화에 역행에서 1세기만 선진국으로 성장하다 후진국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세계 최대 통신회사인 핀란드 노키아가 폐쇄 경영을 하다 망했다. 개방, 혁신, 포용, 창조에 나서지 않으면 광주도 일본, 아르헨티나, 노키아 그리고 수없이 사라져간 도시처럼 약화될 수 있다. 더구나 지방소멸이 갈수록 심화하는 시대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메이드인 광주의 전통산업을 살리고 그에 기반해서 첨단 산업을 육성해 광주경제를 살리자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광주시에 '메이드인 광주 정신'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청, 구청과 공공기관도 첨단기업은 물론 전통제조업·각종 서비스업에서도 학교와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혁신, 서비스혁신, 공공혁신, 사회혁신의 도전과 혁신으로 새로운 살아있는 미래 희망이 있는 메이드인 광주를 만들어야 할 때다. 광주시가 앞장서야 함은 물론이다. 변화와 혁신은 좌절과 사멸의 대가다.

시론



김영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
前 지스트 부총장

며칠 전 문화 관련 공직생활을 한 분과 광주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눴다. 그런데 우리의 논의는 광주가 깊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광주사람들은 광주 하면 맛의 고장으로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대구로 맛 기행을 떠난다고 한다. 광주에 뭐 먹을 것이 있는냐면서, 누가 요즘 얼마나 한정식을 먹을까? 광주시가 내놓은 광주 5미가 떡갈비, 한정식, 김치, 오리탕, 무등산보리밥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음식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고객을 강력히 끌어들이 만한 광주 맛 메이드인 광주 대표상품일까? 광주시민마저 이거 먹으러 달려가진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한 말이 '광주는 맛도 늘

기고



정기연

前 영암신복초등학교 교장

유교에서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으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오상(五常)을 말하고 있다. 인(仁)은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불쌍한 것을 보면 가엾게 여겨 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고, 의(義)는 수오지심(羞惡之心)으로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며, 예(禮)는 사양지심(辭讓之心)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남을 위해 사양하고 배려할 줄

인간이 갖춰야 할 德目

아는 마음이고, 지(智)는 시비지심(是非之心)으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고, 신(信)은 광명지심(光明之心)으로 중심을 잡고 항상 가운데 바르게 위치해 밝은 빛을 뽐으로써 믿음을 주는 마음이다.

"짜가지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짜가지"란 무슨 뜻일까? 인, 의, 예, 지, 4 가지가 없는 사람을 "사(四)가지 없는 놈"이라 했고, 이것이 변해 "짜가지 없는 놈"이 되었다 한다. 짜기 버릇없는 사람을 두고 "짜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데 이것은 유교에서 나온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의 인·의·예·지 4가지를 지키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 했으며 예의 바른 민족임을 자랑했으며 양심에 따른 법을 잘 지키는 민족이었다. 특히

조선 시대의 유교 중심 사회에서는 인·의·예·지 4가지 덕목을 필수적으로 잘 지켜 왔다. 그러나 서양 문화인 기독교 문화가 전래하면서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위축되고 있다.

조선시대 수도인 서울에는 동서 남북의 4대문이 축성됐다. 동대문은 인(仁)을 일으키는 문이라 해서 흥인지문(興仁之門), 서대문은 의(義)를 두텁게 갈고 닦는 문이라 해서 돈의문(敦義門), 남대문은 예(禮)를 숭상하는 문이라 해서 숭례문(崇禮門), 북대문은 지(智)를 넓히는 문이라는 뜻으로 홍지문(弘智門)이라 한다. 서울 중심에는 가운(街)을 세우는 신(信)을 넣어 보신각(博信閣)을 세웠다. 보신각에는 종을 설치해 국가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종을 울렸다. 이처럼 한양 도성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갑작스러운 재해에 비상구는 생명줄

어떠한 건물이든 비상구는 존재한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출입구다.

비상구는 건물의 주 출입구가 막혔거나 비상상황이어서 신속한 대피가 필요할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의 생존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방관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비상구 앞에 적치물을 쌓아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비상구를 폐쇄해놓는 경우도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화

재에서 볼 수 있듯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무리 사소한 요소라도 도화선이 돼 큰 참극을 발생시킨다. 단순히 비상구의 위치를 인지하지 못한다거나 적치물 또는 비상구를 대수롭지 않게 시건해놓은 이런 요소들 말이다.

대형 재난 중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천참사 같은 경우도 비상구를 막아놓은 게 도화선이 됐다. 우리가 항상 자주 가는 건물도 비상구의 위치를 떠올려보면 생각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평소 자주 드나들던 출입구의 위치도 찾지 못할 정도로 패닉에 빠지기 때문에 자주 가는 건물의 비상구 위치



를 확인해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비상구 관리, 소방시설 관리같이 사소한 요소들을 잘 지키고서 우리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고객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안전관리자로서 소방시설을 고장 없이 잘 유지·관리해야 하며 피난·방화시설도 적정상태로 잘 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읍사 시 손님들의 피난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고 통로나 비상구에 물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나 비상구 훼손·폐쇄는 분명한 위법 행위를 명심해야 한다.

대형 재난이 과거보다 더 강력하게 빈번히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시민들은 막연하게 화재 등 여러 재난에 대해 공포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과거 어느 때보다 119를 찾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기 위해서는 소방의 재난 진압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곳에서부터 실천되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의식변화와 재난 예방에 관한 시민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작은 변화들로 시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없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수현·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귀농귀촌 낭만 앞서 범칙 예방부터

요즘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귀향하거나 노후생활을 위해 농촌에 전원주택을 짓는 귀향붐이 일고 있다. 이들 전원주택 대부분은 고품격 형태로 산속이나 마을과 동떨어진 경치 좋은 자리에 위치해 감탄을 연발하게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한옥 열풍까지 가세하면서 농촌지역 곳곳에 한옥마을이 조성중에 있어 도시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전원주택과 한옥마을을 상상수가 도심과 달리 농촌 동네

와 동떨어진 인적이 뜬 야산지대에 위치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방범용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은데다, 외지인 소유자가 별장 개념으로 주말에만 왕래를 하는 사례도 많아 자칫 검은 손길이 미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한옥마을의 경우에는 그나마 몇세대가 단지를 이루며 마을 형태로 조성되어 사정은 조금 낫지만 농번기철에는 빈집털이 범죄가 기승을 우려가 있어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에 집을 나서기 전 현관, 대문 뿐만 아니라 창문까지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외출을 해야하는 것은 가장 기본중에 기본이다. 여기에 범 죄자의 도발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측면에서 집 주변에 모형CCTV나 각종 경보기 작동음을 표시하는 알람판을 설치하거나 빈집임이 노출되지 않도록 라디오를 켜두는 것도 권해보고 싶다. 무엇보다 집안에 현금과 귀금속은 두지 말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안보조사과)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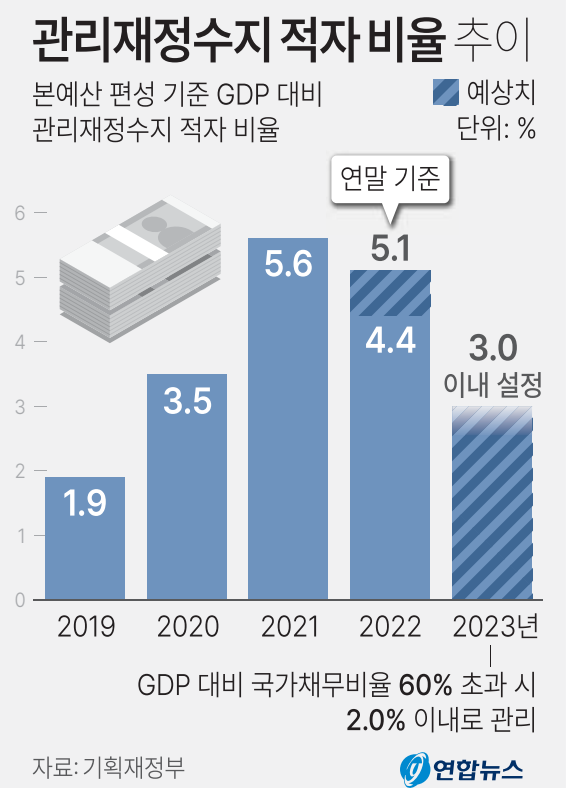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4년 만에 3% 이내로

우리나라의 나라살림 적자가 내년을 기점으로 경제규모 대비 3% 이내로 줄어든다. 본예산 상의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 수준인 5~6% 수준으로 관측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지난 주말 실무안을 완성해 이번 주중 여당과 대통령 최종보고 등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강력한 재정준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2019년 1.9%(37조 6천억원) 이후 4년 만이다. 본예산 편성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 3.5%(71조5천억원), 2021년 5.6%(112조5천억원), 2022년 4.4%(94조1천억원)였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예상치가 5.1%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긴축을 의미한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정부 650-2030	사신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실시부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